

죽음의 의미와 부활의 영광

성경말씀: 고전15:50-58

요즘 날이 덥다. 어르신들 고생, 목사의 책무, 2주 전쯤 전화 “구원 확신 체크 할까요?”
수요일 오후 2시 한숙향 어르신 임종, 1927년 평안도 영변, 만 90세, 6.25 전쟁. 이남 피난,
1974년 남편 소천(47세), 43년 전, 딸 하나, 아들 셋, 훌륭한 자손들
우리 교회 7-8년, 건강한 모습, 우리 집 옆에서 같이 살았다. 구원 간증: ‘예수님만 믿는다.’
목사의 불면증 신경 쇠약, 같이 화투 치면서 도와주려고 애를 씀, 소천한 모습 아주 평안하다.
솔로몬의 지혜의 말: 잔칫집이 아니라 초상집에 가라(전7:2).

우리 옆에 있던 지체가 평안히 고향으로 돌아감.

<죽음의 의미와 부활의 영광>, 유가족 위로, 인생의 의미(죽음), 부활의 소망, 기독교 핵심 점검

죽음

죽음은 모두에게 임한다(전8:8). 죽음 자체가 인간의 운명, 인생의 한 과정

여기에 아무 의미가 없다면 인생의 의미 붕괴, 기독교의 핵심 붕괴(15:19), “먹고 마시자”
기독교는 유일하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종교, 다른 종교: 마음의 평안, 만수무강 등
기독교의 핵심: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인생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영원을 어디서 보내느냐의 문제
모두가 죽는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가? 죽음은 무엇인가? 사람의 대답은 허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성경에 있다. 그대로 믿어야 한다. 거짓 위로 불필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롬15:4), 죽음에 대해 성경은 무어라고 말하는가?

여러 차례 죽음과 부활 설교, 구글링 Christian meaning of death, Bible.org의 글

1. 왜 죽는가?

어떤 책도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 오직 성경만 답을 준다.

모두가 죽지만 원래 죽음은 인간에게 주어진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다. 부자연스러운 과정

죽음은 몸에서 영과 혼이 떠나는 것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불멸의 상태로 영원히 살도록 지어진 존재

이것이 원래 정상적인 창조의 목적

그런데 죄로 인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창2:16-17; 롬5:12).

2. 죽음은 원수이다

사망은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정복할 원수(고전15:25-26). 천국에는 죽음이 없다.

죽음이 원수인 이유

1. 마귀의 공격으로 인한 결과, 2. 사람을 몸에서 분리
3. 사랑하는 사람들을 앓아 간다, 4. 사람의 존재 목적을 잃게 만든다.
5. 그리스도 밖에서 죽으면 영원히 지옥행

3. 성도는 죽음에 대해 승리한다

고전 15장 부활 장, 왜 부활이 필요한가?(50)

부활의 과정(51): 7년 환난기 시작 전에 자신의 신부를 데려가시려고 신랑이 오신다.

죽은 자들의 몸의 부활, 산자들의 휴거(52)

그 결과(53), 그 결과(54), 그 결과 죄의 패배(56)

1. 예수님이 승리했기에 우리도 승리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영원하지 않다.
반드시 부활한다(51). 다시는 이별이 없다. 다윗의 말(삼하12:23)
2. 사망의 쏘는 것이 승리 가운데서 제거되었다(54-55). 쏘는 것은 죄(56), 죄로 인해 한 번 죽는다(히
9:27). 죽는 것은 정해진 약속이다.

그런데 주님의 단번 속죄로 인해 사망의 쏘는 것이 완전히 제거 되었다. 정죄가 없다(롬8:1).

눈물, 사망, 슬픔, 고통, 형벌이 더는 없다(계21:4)

암의 고통, 정수영 형제(49세), 여러 병(정관영 형제), 이수영 자매님 부친, 늙는 것의 아픔, 울음이

더는 없다.

3. 그런데 죽음과의 약속이 취소되었다. 한숙향 어르신이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맞이하신 바로 그날,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의 형벌과 심판에서 그분을 벗어나게 함, 성령의 법(롬8:2)

4.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늘의 우리 고향으로 떠나는 시작이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다.”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의 고백(딤후4:6),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떠난다는 말의 의미: 1. 정박 중인 배가 닻줄을 풀고 돛을 올리는 것, 2. 진영에 있던 군대가 움직이기 위해 진영을 해체하는 것, 3. 석사슬에서 사람을 풀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의 성도들에게 주는 죽음의 의미

집을 떠나 여행하다가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비행기를 타거나 기차를 타고 집에 간다고 생각해보자.

얼마나 편하고 좋은가? 한숙향 어르신의 임종 시 얼굴 모습, 너무 편하다. 암의 고통을 이겨냈다.

천사들의 인도로 고향으로 간다.

그곳은 주님이 계신 곳이다(요14:1-3).

아벨, 노아,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는 곳, 모세, 여호수아,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베드로, 바울 죽으면 곧바로 주님께 간다(고후5:8), 중간 대피소 같은 곳 없다.

물론 한 번도 경함하지 않은 것, 호기심도 있고 불안감도 있다. 그러나 집에 가는 것이다.

5. 우리의 몸을 다시 연합하기 위해 부활이 있다. 고전15:42-44, 고통과 슬픔으로 심고 영예로 일어난다.

바울의 표현(빌1:23), 죽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주님의 말씀(요11:25-26)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갖는다(빌3:20-21).

6. 공동 상속자가 된다(롬8:16-17). 뱀전1:3-5

이 상속물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 땅의 것과 정반대되는 것이다.

성도들에게는 구원 이후 수고의 보상이 주어진다(고후5:10). 하나님은 공정한 분이다.

그래서 남은 시간을 주님을 위해 써야 한다(58절).

7. 성도의 죽음은 주님의 눈앞에서 귀중하다(시116:15).

주님에게는 우연이 없다. 데려가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롬8:28-29).

성도의 죽음: 하나님이 정하신 것, 그분의 선을 위해

그분은 주님께 갔으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롬8:38-39).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

결론

마귀의 공격, 인간의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 왔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자신의 아들을 믿는 자들을 그분처럼 되게 해 주신다.

죄들의 고백(어쩔 수 없는 죄인), 유일한 구원자 고백

원래 아담과는 비교가 안 되게, 마귀의 계락을 완전히 뒤집어엎는다.

이 행복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

‘안에’ 있는 것을 빼내려면 힘이 더 센 자가 있어야 한다. 의자가 방 안에 있다. 내가 방보다 힘이 세므로 밖으로 가져갈 수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어느 누구도 빼내지 못한다.

누가 하나님보다 힘이 센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 3-7, 10-11, 12